



광양제철중 '축구왕'

안산 원곡중 3-1 꺾고 우승
춘계 중학교 축구연맹전

광양제철중학교가 올 시즌 첫 전국대회인 2007 춘계 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제철중학교는 17일 강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강호 안산 원곡중학교에 3-1로 역전승을 거두며 패권을 차지했다.

광양제철중학교는 이날 전반 24분 선취점을 내줬으나 후반 후반을 발휘, 3골을 퍼부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우세한 공격을 펼치고도 선취점을 허용한 광양제철중은 후반 4분 이종호의 오른쪽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김용식이 오른쪽 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광양제철중은 후반 23분 원곡중 왼쪽 코너에서 한 코너킥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이종호가 오른쪽 슛으로 역전골



17일 강원에서 열린 제43회 춘계한국중학교축구연맹전 결승에서 원곡중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광양제철중 축구부.

을 터뜨렸다. 역전에 성공한 광양제철중은 2분 뒤 우영진이 전열이 흐트러진 원곡중의 왼쪽을 돌파한 후 올린 크로스를 김용식이 오른쪽 슛으로 가볍게 차넣어 우승을 확정지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편 결승골을 포함 이번대회에서 8골을 뽑아낸 광양제철중의 이종호는 득점왕, 수비수 윤준열이 최우수수수상을 수상했다. 또 광양제철중 김인환 감독과 이점성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1안타에 졌다



8안타 치고도 SK에 0대 1 패

KIA가 수많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진기록의 재물이 됐다. KIA는 6회와 8회를 제외하고 매회 주자를 내보냈지만 단 한명도 홈을 밟지 못했다. SK 선발 투수 케니 레이번에 이어 정우람, 정대현이 버틴 SK 마운드에 안타 8개와 볼넷 3개를 얻었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9회 2사 2루에서 마지막 동점 찬스에서도 이종범이 이현근 타석 때 무리하게 3루 도루를 시도하다 정대현의 견제에 걸려 허무하게 찬스를 날렸다.

KIA는 17일 인천구장에서 계속된 2007 삼성 PAVV 프로야구 SK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 8안타를 몰아치고도, 1안타에 그친 SK에 0-1로 패했다. KIA는 3회 수비때 최경태의 볼넷에 이어 정경배의 좌전 안타로 무사 1, 2루 실점 위기를 맞은 뒤 박재상의 땅볼을 2루수 김중국이 뒤로 흘리는 바람에 빠야만 1실점을 내줬다. KIA 선발 투수 윤석민은 70닝 동안 단 1안타만 내주고 삼진 7개를 쉼내며 1실점(비자책점)의 뛰어난 투구를 펼쳤지만 무거운 타자들 탓에 3패째를 안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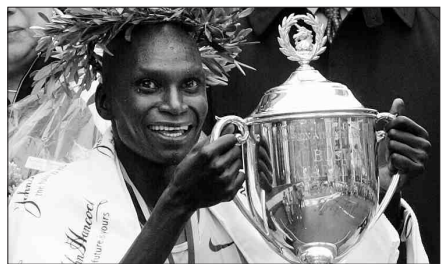
“체력훈련·부상방지 전념”

‘피겨 요정’ 김연아

9월 슈퍼매치 대비 침치료

‘피겨 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10월부터 시작하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허리 치료와 체력 훈련 등 부상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김연아는 17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V-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 개최 관련 기자회견에서 “요새는 스케이트보다는 허리 치료와 체력을 보완하는 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1일 입국한 김연아는 침을 이용한 허리 치료와 체력 훈련을 하느라 스케이트를 신는 건 1주일에 3~4회 정도 이고 훈련 시간도 길지 않다.

김연아는 “허리가 많이 나야지기는 했지만 완치가 안됐다. 요새는 기존에 맞던 침보다 더 강한 침을 맞고 있다. 아직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스파이럴이 나스런 등 지난 시즌 경기를 하면서 발견한 단점을 보완해 다음 시즌에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62cm였던 키가 1cm가 자라 현재는 163cm라고 전했다. 김연아는 이달 말 재팬피겨스케이팅오픈 갈라쇼 참가를 위해 일본에 다녀온 뒤 다음 달 초에는 캐나다로 출국해 다음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9월 14~16일 북동아시아링크에서 열리는 현대카드 슈퍼매치에 출전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체루이요트 보스턴마라톤 우승

사상 최악의 악천후 속에 펼쳐진 제111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케냐의 로버트 체루이요트(28·사지)가 2시간14분대의 저조한 기록으로 우승했다. 체루이요트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내 코스에서 끝난 대회 남자부 42.195km 레이스에서 2시간14분13초에 결승선을 끊어 제임스 크왈바이(케냐·2시간14분33초)를 힘겹게 따돌리고 1위로 끝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8일(수)
 - ▲메이저리그(보스턴-토론토)(08:00·Xports)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50·SBS스포츠)
 - ▲프로야구(SK-KIA)(18:30·MBC ESPN), <한화-LG>(18:00·KBS SPORTS)
 - ▲올림픽 축구 2차예선(우즈베키스탄-한국)(17:50·SBS스포츠), <이란-요르단>(23:50·SBS스포츠)
- 19일(목)
 - ▲이탈리아 세리에 A 축구(인터밀란-AS 로마)(03:30·KBS SPORTS)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리버풀-미들스브로)(04:00·MBC ESPN)



승엽, 허리조심!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이 히로시마 도요코프와의 경기를 앞두고 17일 오후 고베 스키야마치 야구장에서 타격연습 도중 허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1안타로 이겼다

美 클리블랜드 1회 톱타자 안타 2-1 승리

55년만에 진기록
한국에선 세번째

한국과 미국 프로야구에서 안타 단 1개만으로 이긴 팀이 동시에 나왔다. SK 와이번스는 17일 통산 3번째 ‘1안타 승리’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SK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KIA와의 대결에서 3회 정경배의 좌전 안타가 팀이 기록한 유일한 안타였지만 KIA의 실책에 편승, 1-0으로 이기고 5연승을 내달렸다. 역대 ‘1안타 승리’는 1983년 6월26일 롯데가 OB(현 두산)를 상대로, 2004년 7월25일 SK가 KIA를 상대로 달성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SK는 지난 2004년 7월 25일에도 인천에서 열린 KIA와의 대결에서 상대 선발 리오스(현 두산)를 상대로 8회말 볼넷 2개로 2사 1, 2루를 만든 뒤 정경배의 좌월 2루타로 1-0 승리를 기록, 지난 83년 롯데의 1안타 승리 이후 두 번째로 1안타 승리팀이 됐다. 양팀이 각각 1안타씩을 주고받은 이날 대결은 한국 프로야구 사상 한 경기 최소 안타 기록도 함께 세웠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1회 톱타자의 첫 안타로 승리하는 희귀한 경기가 열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P 통신은 16일(이하 한국시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대결에서 2-1로 승리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55년 만에 ‘1회 톱타자의 첫 안타’로만 이긴 팀으로 기록됐다고 17일 전했다. 16일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의 유일한 안타를 생산한 선수는 1번 타자 그레디 사이즈모어로 1회 우선선 2루타를 터뜨렸다. 그는 후속 트루트 닉슨 타석 때 패스트볼이 나와 3루까지 간 뒤 닉슨의 유격수 땅볼 때 홈을 밟아 이날의 결승점을 올렸다. 클리블랜드는 4회에는 볼넷 2개와 실책으로 만든 만루 찬스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냈다. 시카고는 안타 6개, 볼넷 3개로 클리블랜드보다 많은 찬스를 잡았지만 6회 1점을 따라가는데 그쳐 어차구니 없는 패를 당했다. 스포츠통계회사 엘리어스 스포츠뷰로에 따르면 톱타자의 유일한 1회 첫 안타로 승리하기는 1952년 4월24일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가 클리블랜드를 1-0으로 제압한 이후 이번이 55년 만에 안타를 때린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의 1번 타자 바비 영이었다. 지난 15년간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2안타 이하를 친 팀이 이기는 클리블랜드가 10번째로 그 중 홈런 없이 승리하기는 이번이 4번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싱그러운 새 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축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디쉬갤러리 Open Sale

MODISH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쇼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쇼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기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Open기념 황토침실대, 정수음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장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무도출발, 부동(고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를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

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홍델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 -홍델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
*일정 - 1일째: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 출발 -홍델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홍델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
*출발일: 매일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59,000원(주중+주중)
169,000원(주중+주말)

★ 렌트카 파격할인 ★
전차종 75% 할인
※네비게이션 포함

2박3일 항공골프투어 369,000원
일요일 출발 기준(관주 오전 출발, 제주 14시40분 출발)
*포함내역: 왕복항공, 관광호텔 2박, 조식 2회, 그린비 2회(3종), 세면대용 2인

1박2일 항공골프투어 379,000원
일-화-수 출발 기준(관주 오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포함내역: 왕복항공, 관광호텔 1박, 조식 2회, 그린비 2회(3종), 세면대용 2인

오픈기념: 해저탐험 접수관광을 원할시 49,500 → 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이름 적용)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